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성가

2023년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미사곡	Missa Brevis By Jacob de Hann	Missa Brevis By Jacob de Hann
입당성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99	어서 가 경배하세 102
구유경배와 예물준비성가	오늘 아기 예수 103 어서가 경배하세 성가대 첫성탄 성가대 경사롭다 110 이사야 말씀하신 98	예물준비성가 이사야 말씀하신 98
영성체성가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101 찬바람 스치는 마구간 106 천사의 찬송 107 사랑의 아기예수 105	천사의 찬송 107 오늘 아기 예수 103 찬바람 스치는 마구간 106
특송	Christmas Lullaby by John Rutter	Christmas Lullaby by John Rutter
파견성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484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101
화답송 밤	Andante 오늘우 리 구원 자 주그리-스도-태-어나셨 다- rall.	
화답송 낮	Andante 우 리하느님의 구원 을 온세상땅끝마다 모두 보 았 네- rall.	
영성체송 밤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영성체송 낮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Responsorial Psalm	All the ends of the earth have seen the saving power of God.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대축일 밤 8:30 p.m.	황 성 숙	남 승 욱	정 희 애	김 재 국	Regina Lee • Ryan Kim • Monica Kim • Ted Park
대축일 8 a.m.	오 규 화	정 봉 재	백 정 덕	윤 건	Luna Bae • Justin Kim • Aiden Nam • Julie Kim
9:30 a.m.	Ryan Kim	Brian Kim	Edward Lee	Jessica Lee	Gabriel Nguyen • Jake Moon • Stella Park • Olivia Baek
11 a.m.	최 현 진	강 석 구	박 미 영	이 병 립	Jaycee Choi • Claire Kim • Vincent Ro • Jennifer Le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t. Paul Chong Ha-Sang Roman Catholic Church

32-15 Parsons Boulevard Flushing, NY 11354
Tel: 718-321-7676 | Fax: 718-321-7005 | Web: StPaulQueens.org

NATIVITY OF THE CHRISTMAS DAY

주님 성탄 대축일

December 25, 2023 (Year B) No. 2666



“예수 성탄” 오보 김기창 베드로 <1954년 작>

성탄 대축일 성야 미사 12월 24일(일) 8 p.m.	성탄 대축일 미사 12월 25일(월)	오전	일반미사 8 a.m. (한국어 미사)
			학생미사 9:30 a.m. (English Mass)
			교중 미사 11 a.m. (한국어 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 우리 위에 빛이 비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태어나셨네. 주님은 놀라운 하느님, 평화의 임금님, 영원한 아버지라 불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이사 9: 1, 5; 루카 1: 33)

오늘 성탄 새벽 미사 입당송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동녘 하늘에서 올라 온 세상을 밝게 밝히는 태양처럼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세상에 합성을 지릅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올 한해도 쉽지 않은 해였지만, 코비드의 두려움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고, 우리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9일 로버트 주교장님을 모시고 기념 미사를 드린 이래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다지는 알차고 가슴 뿌듯한 마음으로 여러 행사를 더욱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야외미사, 성경 골든벨, 각 단체 대항 콩주머니 던지기 대회, 골프대회, 연합 성가대 음악회, 그리고 바자회, 등 지난 11월 19일 주일 미사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가 숨가쁘게 달려 온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행사와 기도가 몇몇 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오십 년간 축적되온 우리의 전통이고 힘이며 나아가 우리 본당 모든 식구가 굳은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사목회원, 각 단체장, 각 봉사자를 위시하여 우리 본당 식구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에 본당 신부로서 이 모든 행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님의 큰 은총이며 영광입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 이제는 영광스러운 한 해를 갈무리할 때입니다. 갈무리는 다가오는 봄을 준

비하며 수확의 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주님의 탄생과 함께 갈무리하며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준비합니다.

성탄은 세상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은 성모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주변의 극진한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3: 16)

하느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은 현재 도처에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고, 특히 예수님께서 태어난 땅에서 전쟁의 비극이 한창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탄생한 땅에서 전쟁의 비극은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참화 속에서도 피어나는 들꽃처럼 그들의 희망이 되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자그마한 들꽃으로 덮인 들판의 아름다움은 들꽃 한 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녀린 아이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꽃 한 포기가 두 포기 되고, 네 포기가 되고 여덟 포기로 성장하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모여 온 세상을 회개와 용서의 복음으로 덮으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주님 성탄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일을 여는 거룩한 문입니다. 성탄의 거룩하고 고요한 밤은 바로 어둠을 이기고 드러나는 빛을 위한 위대한 전 주곡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그리며 가슴 벅차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희망의 이유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 14)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빅호식 시도요한 신부>

말씀이 사랑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듣고, 새기고, 실천하여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봉헌하는 매일이 되시길 기도하며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속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 마크리나 수녀>

I pray all the blessings and grace of God-become-human
descend upon all of you this Christmas.
< Fr. Joseph Veneroso, M.M. >

이 거룩한 시절에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온갖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 배종섭 요셉 신부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복음 1:45)

성모님의 믿음으로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우리 본당
모든 신자분들의 가정에 넘쳐나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기도드립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남희봉 벨라도 신부

+임미누엘

누추하기 짝이 없다면 우리가 구유이고,
그곳에 빛이 내려오시니 심탐이며,
그 빛이 우리의 함께 계시니
기뻐하며 힘호합니다!

모든 신자분께 메리 크리스마스~~~!!

<조 요한네스 수녀>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이
퀸즈본당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진명 바오로 부제

성탄의 기쁨이 퀸즈성당 모든 신자분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도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기쁜 신앙생활 하시길 기원합니다.

<임석원 요한 부제>

빛과 희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남 요한 사목회장

